

# 세속 떠나지 않은 山...백두대간의 중추

## 백두대간 속으로

(16)

### 속리산 (1)

**사**는 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혹은 너무 무거운 짐이 존재의 의미를 위협할 때, 흔히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를 꿈꾼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는 곳, 지금까지 보아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땅이 싹트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 길은, 일상으로의 귀환이 예약된 하루 이틀의 짧은 여행일 수도 있고, 무작정 떠도는 부랑의 길일 수도 있고, 천야만야한 낭떠러지에 서서 홀연히 자신의 본래면목과 마주치게 될 구도의 길일 수도 있다.



초록 비단과 같은 녹음을 이룬 천황봉 오름길.



하늘 세계로 들어서는 문인 양 벽공으로 열린 '천황석문'.

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길 떠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탈속(脫俗) 지향'이다.

세속을 떠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모든 인간의 잠재 본능과 같은 '자유 의지'의 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이라는 인과와 그물은 힘으로 정교한 것이어서, 모든 '길 떠남'을 궁극의 자리에 닿게 하지는 않는다. 저지른 바 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갈무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또한 삼인 까닭이다. 그래도 '탈속의 꿈'마저 접을 수는 없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삶을 가능케 하는 모든 조건들은 새의 비상을 가로막는 울타리 같은 것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속리산(俗離山)으로 간다. 세속을 떠난 산으로 가는 것이다.

일찍이 조선 선조 때의 시인 백호 임제(白湖 林樾, 1549~1587)는 다음과 같이 속리산을 노래한 바 있다.

도는 사람을 멀리 않건만 사람은 도를 멀리하고,  
산은 세속을 떠나지 않건만 사람은 산을 떠나네.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분방이 지나쳐 스무 살이 넘도록 따로 스승이 없던 임제는, 스물두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벼슬을 멀리하고 속리산에 숨어 살고 있던 성운(成運, 1497~1579)을 만나 그로부터 3년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때 <중용>을 800번이나 읽었다는 일화가 전하는데, 위의 시 또한 '도불원인(道不遠人)'이라는 중용의 한 구절에서 얻은 듯하다.

도가 사람을 떠나 있지 않듯이 산 또한 사람을 떠나는 법이 없다. 따라서 속리산은, '세속을 떠난 산'이 아니라 '세속이 떠난 산'이다. 실제로 속리산은 속린 것들의 범람을 세 허락할 것 같지 않은 풍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속리산은 세속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세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굳이 풍수사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더라도, 지도만 펼쳐면 누구라도 그곳이 한반도의 심장에 해당하는 곳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리산의 길지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와 이 땅의 동백을 이루는 백두대간이 끝난 달려 남해로 향하지 않고 왜 태백산에서부터 남서쪽으로 흘러들 물러 지리산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 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일제에 의해 왜곡된 산맥 체계에 따라 남령산맥과 함께 이 땅의 등뼈로 불리었던 '태백산맥'이 '낙동정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도 있다. 백두대간이 지리산으로 향해야만 비로소 한남정맥에서부터 낙남정맥에 이르는 7개의 정맥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만 동백로서의 백두대간의 구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형제봉에서 바라본 속리산. 화면 위쪽 가운데 부분의 바위 능선이 속리산의 으뜸 줄기다.

## 조선 목객 임제 한때 입산 수도 천황봉~문장대 바위능선 절묘

**사**실 태백산에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옛 문헌에서도 고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신경포(1712~1781)보다 앞선 인물인 이종환(1690~1752)도 <태리지>에서 우리 산수의 전체 형세를 말하며, "남쪽으로 수천 리를 내려가 경상도 태백산까지 한 줄기 마루로 통한다. ... 태백산에서 산줄기가 좌우로 갈라져서 인북 지방은 동해를 따라갔고, 오른쪽 지방은 소백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태백산 쪽으로 내려간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적고 있다. 이 땅의 산수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파악한 <산경표>의 지리인식 체계가 정립되기 전에는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했을 법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백두대간을 으뜸 산줄기로 파악한 <산경표>의 지리인식 체계야말로 이 땅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정교한 사고의 결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처럼 속리산은 백두대간의 중추 역

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떠남이란 멀리 달아나는 일이 아니라, 한복판 즉 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말없이 일깨워 준다. 실제로 속리산의 품에 안겨 보면, 멀리서 바라볼 때의 모습이나 이름과는 달리 아주 편안하다. 범주사에서 오르는 길은 풀원이거나 천황봉에서 문장대에 이르는 등성마루 또한 누구에게나 즐거운 산행을 허락한다. 오는 사람 마다 알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태도로 모든 발길을 속가슴으로 안아 주는 그런 산이다. 백두대간 풍수를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속리산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천황봉의 동남쪽에 위치한 형제봉(803.3m)에 올라야 한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속리산은, 하나의 정수리만 도드라진 그런 산이 아니라 천황봉(1057.7m)에서 문장대에 이르는 기묘한 바위 능선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봉우리를 이루는 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옛 사람들도 속리산에 대해서 만큼은 제1봉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신증동국여지

승람>에도 "봉우리 아홉이 뽕죽하게 일어서기 때문에 구룡산(九龍山)이라고도 한다"고 특색이 적혀 있다. 속리산의 연이어진 봉우리 전체를 산의 정수리로 파악한 흔적은 속리산의 제1봉인 천황봉의 이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언제부터 천황봉으로 불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80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에는 분명히 <천황봉(天王峯)>이라 적혀 있다. 이 때의 천황이란 가람을 수호하는 천황과 같은 존재로 봐도 좋다. 천황(황) 봉 다음 봉우리의 이름이 법신봉을 일컫는 (비로)인 것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 속리산 마루에 '대자재천왕사(大自在天王祠)'가 있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도 지금의 '천황봉'이 잘못된 이름임을 방증한다.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고증을 해야 할 일이지만, 만약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천황을 영두에 두고 왜곡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속리산은 그 이름과 달리 세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세속적인 예깃거리(세초와 얽힌 애기만도 한둘이 아니다)를 만들어 우리 민족과 함께한 산이다. 다음 차례에는 주종 풍우와 함께 세속과 탈속을 오간 갖가지 흔적들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글=유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어서아문 이시어문은 '경은 비경 저야 어리랴도 없어 잔이 잔'은 장인으로 2000년 1월 1일 개국 만들었습니다. 주소: 서울구 경서동 19-1 전화: (02)737-0026 팩스: (02)737-0026

##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해능 스님 위음 B6 변형 330쪽 /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밀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물귀정경, 업상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비사경
- 팔관재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살우바이타사기경, 불살팔관재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람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저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파멸, 천한 사람, 대부호, 마넛타,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심갈라경, 옥야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회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회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밝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열두,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불심수행경, 대승육정참회

#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